

<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마태복음 11:28-30 / 새찬송가 419 (통일 478)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1. 우리 마음의 쉬이 필요하다

육신의 피곤이 아니라 마음의 피로가 풀려야 합니다. 육신은 고단하다가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 고단함이 싹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아무리 자고 쉬고 먹고 해도 마음의 스트레스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 근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오히려 몸은 더 피곤해지고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안식이란 바로 마음의 슬픔 걱정 근심 염려 스트레스를 풀고 얻게 되는 마음의 안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명의 이기가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령의 피로를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심령의 피로를 풀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마11:28).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심령의 피로를 풀어 보려고 알코올, 음란, 마약, 도박이나 쾌락을 찾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는 좋지만 점차 더욱센 것을 찾게 만들고 결국 그 피로가 더 커집니다. 그것이 중독입니다.

2.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배워야 참된 마음의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배워야 심령의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마11:29).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을 받는 것이어서 기적같이 순식간에 믿을 수 있으나 배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멍에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고 따르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지지 않으면 즉 배우려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세상의 멍에를 지고 세상에서 배우게 되므로 심령에 악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악인이 되고 악인이 받는 화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악에는 미련함과 꾀가 있습니다(잠5:22,23). 미련하게 되면 마음이 혼미하게 됩니다. 주님께 배우려 하지 않고 주님의 훈계를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혼미한 것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잠1:7). 또 주님께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악인들의 사악한 꾀를 좇게 됩니다(시1:1),(시37:12,13). 미련함이나 꾀는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악인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고 주님께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 둘을 피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 즉 위로부터 받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성도들은 이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약3:17).

3.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나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나를 죄악과 멸망, 죄와 정죄, 질병과 가난과 저주,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구원의 응답을 받아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선생님이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매일 나를 가르치시고 권고하시고 훈계하시고 대화하시고 변론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양심으로 주님께 질문을 드리고 주님의 답변을 사모하며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심령에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시편 73편의 아삽처럼 기도하면서 동시에 주님께 여쭙보아야 할 것입니다(시73:1-5),(시73:12-20).

<적용&실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더불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사모하며 그 가르침을 여쭙보고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까?